내적 자유의 구현

Ⅰ. 자유 아니면 죽음을!

세계역사는 자유의식의 발전과정이라고 보는 사관이 있다. 헤겔이 그렇게 본 것이다. 정말인가? 역사과정을 보면 이 견해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일면이 있다. 고대 군주사회에서 참 자유는 군주 한 사람에게만 있었다. 그는 곧 법이요 질서며 윤리의 기준이라고 자처했으니 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자유는 귀족이라는 계층으로 확대되어갔다. 귀족이란 신분계급이다. 물론 그것은 한정되어 있었다. 저들은 군주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신분계층인 귀족에서 시민계층에로 자유는 확산되었다. 시민은 신분계층에 국한된 자유를 실력으로 쟁취했다. 그 실력은 바로 경제력이었다. 경제력을 축적함으로 자주할 수 있는 자들은 예속관계에서 탈출하여 자치적 시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입헌 민주체제가 형성됨으로써 자유는 마침내 만인에게 확산되었다. 이것은 물론 법조문상으로 인정됐다는 것이고 현실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자유의지가 계속 발전 확산된 것이 세계사라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스스로 다가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싸워서 획득한 것, 또는 싸우면서 관철된 것이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이 프랑스혁명에서 내건 기치다. 그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로부터 자유는 현대인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이것은 자유는 죽음을 내건 싸움에서 얻어졌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프랑스혁명 이래 이 자유를 위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나무는 피를 먹으면서 자란다는 말이 진리처럼 들리게 된 것이다.
사람은 자유할 수 있어서 사람이다. 이 자유 의지를 포기하거나 어떤 예속상태에서 체념하는 순간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정체를 잠식당한다. 그러므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주장은 백번 옳다. 엄격히 말해서 자유가 없으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데 이 자유는 정말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Ⅱ. 자유란?

자유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 앎으로써만 가능하다.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세계 안의 존재'라고 한다. 이것은 책임적 존재라는 뜻도 되지만 그것에 앞서 인간은 진공 속에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의 존재' 즉 관계적 존재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숙명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나(인간)는 스스로 선택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선택과 상관없이 세상에 났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내 성이나 출생환경도 나의 자유한 선택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 들어오고 또는 언제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 그런데도 세상에 태어 났으니 결국 강요된 '세계 안의 존재'가 된 셈이다.
나는 세상에 나오자 이미 형성된 환경의 포로가 된다. 크게는 가풍, 구체적으로는 나의 엄마와 아빠의 사람됨, 성격 그리고 취미 등 그리고 삶의 수준으로 형성된 분위기에 의해서 조종된다. 젖을 먹느냐 우유를 빠느냐도 내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고 나를 감싸는 의복의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모양이나 색깔까지도 나의 자유한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그대로 내맡겨야 하는데, 만일 세 살까지 배운 것이 일생 동안 받는 교육보다 더 많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교육이 인간 형성에 영향이 있다면 나의 나됨은 내 선택이 작용하기 전에 결정되는 셈이다. 가정이라는 데 포로가—사람들은 요람이라고도 하지만—되었던 나는 교사들에게 이송된다. 그것은 단지 교사들에게만이 아니라 학교라는 생소한 '사회'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것이 '생존경쟁의 장'이라면 나는 스스로 선택한 경쟁장에서 경쟁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바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학교거나 공장이거나 하여간 사회라는 조건지워진 현실에 던져진다.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서양이 아니고 동양, 동양에서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인으로 운명지워졌다. 그것은 내가 한국이라는 고유한 나라가 지녀온 역사적 '숙명'에 의해 제약 받을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내가 쓰는 언어를 위시한 문화, 경제, 정치적 조건이 나를 규정한다. 이 나는 아무리 세계인임을 표방해도 이 민족적 조건을 비약할 수 없다. 나의 자유란 이러한 인간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존재이기에 사람은 자유를 희구하도록 되어 있다. 사람은 주어진 상태를 타의에 의한 포로 상태라고 의식할 때 이에 반항하게 된다. 여기서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누가 내가 참여하지도 않았고 내게 의사를 묻지도 않은 규정—그것을 윤리라고 하든 도덕이라고 하든 사람의 도리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을 만들고 나를 그것에 맞추려고 하며 또 그렇게 만들어진 궤도에 따라 살도록 강요하는가?

이러한 자의식은 이른바 '내적 자유'라는 영역을 설정하고, 어떤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내적 자유는 사상의 자유, 느끼는 자유, 의지의 자유다.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힘도 간섭할 수 없으며 억제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역이요 지성소이다. 그것은 그러므로 신성불가침이다. 감옥에 앉았으면서 천하를 주름잡는 사상과 의지를 펴고, 변소에 앉았으면서도 무한을 생각하고, 거지꼴로 그날그날 구걸하여 연명하면서 억만장자를 가련한 존재로 측은하게 생각하고, 개집같은 통 속에 살면서도 왕의 동정 따위는 일소에 붙이면서 햇빛이나 가리우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는 그런 고고함이 인간의 존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누가 이런 내적 자유를 침범할 수 있으랴!

그러나 이런 자세는 인간이 세계 안의 존재임을 망각했거나 무시하는 데서 온 것이다. 그것은 세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실은 세계 밖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자유추구는 곧 막다른 데 이른다. 까닭은 그런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외적 조건에 부딪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안의 복병에 의해서다. 자기 안의 복병이란 외적 조건과 영합하는 욕구로써 이 자유의지는 협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스토아 사람들은 결국 금욕주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모든 감각적인 것을 폐쇄 또는 절단함으로 외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며 무관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자유의지는 부정과 방어행위로 귀착되고 만다. 이것은 결코 자유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그런 자세는 극단화되면 결국 인간이 인간되기를 그만 두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세계 안의 존재임을 포기한다는 말이요, 자신을 비역사화 한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자유하기 위해서 결혼도 거부했다. 까닭은 결혼생활이 자유를 구속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능적 욕구를 주체할 길이 없다. 그는 한 여인을 알게 된다. 그는 그 여인과의 본능적인 관계를 갈망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엄한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 그러므로 그녀를 만나는 길은 그녀의 방으로 잠입해 들어가는 길 뿐이다. 적당한 날은 일주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일의 어느 하룻밤 뿐이다. 그는 그날 밤이 오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 신을 벗어 들고 그 부모들의 방문 앞을 소리내지 않고 통과하여 그녀의 방에 들어가서 숨을 죽여가면서 만나는 일을 계속했다. 그것은 결코 자유인의 꼴이 아니다. 도둑고양이 같은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그 자신에 대해서 그는 큰 회의를 느낀다. 따지고 보면 매사가 그렇다. 자유하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비열한 인간, 무능한 인간으로 만들 뿐이다. 돈에 자유하기 위해서 돈을 멸시해 본다. 그러나 바로 그 돈의 결핍 때문에 비굴해지는 따위가 그런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는 햄릿처럼 결단 앞에 주저한다. 마침내 총을 들고 레지스탕스에 가담한다. 그러나 그는 결코 용감하지 못하다. 그것은 그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하려는 자신에게 절망적이 된다. 마침내 때가 온다. 적군이 그가 머문 동리를 점령하고 집집을 수색한다. 그는 어떤 집 지붕 아래 공간에 숨어서 그들을 응시하면서 공포에 떤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저들을 향해 난사한다. 이 순간 그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한다. 난사하는 순간 그는 자기생 에 대한 미련의 줄을 놓아버린 것이다. 이 순간 그는 자유한 인간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의 죽음을 의미한 것이다. 이것은 싸르트르가 본 자유에의 길이다. 즉 종국적 자유는 죽음으로써만 실현된다는 것이다. 자유는 그 삶을 포기할 때 비로소 획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자신이 파괴되는 한에서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의 행동에 의해 자신의 생을 끝마친다는 생각", "자유롭게 죽는 것이 인간의 완전한 종말이라"는 확신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사변적인 자유가 아니라 역사현실에서의 자유이다. 그러면 인간의 조건을 전제해야 한다. 자유에 대한 사변은 '사람'을 증발하게 한다. 자유의지는 무엇으로 인한 제한 또는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무엇에서 해방되려면 또다른 무엇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나를 해방하여 자유하게 한 '그 무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엇'이 또다시 나를 제한 또는 구속한다. 그것에서 자유하기 위해 또 다른 무엇에 의한다. 이것은 한 형태의 예속관계에서 다른 형태의 예속관계로 옮겨진 것이지 자유한 것이 아니다. 정말 완전히 자유하려면 나무에 매달려 삶을 유지하는 두 손을 놔버리듯 놔버리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나의 존재는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세계 안의 존재임을 포기 하는 데서만이 자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Ⅲ. 사회 안에서의 나의 자유

'내적 자유'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의 사회성을 도외시하기 쉽다. 나는 홀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외계와 차단된 상태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내적인 나'가 존재하는가?

내가 내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가 외적인 요인없이 순수 내적인 것인가? 이른바 내적인 것은 밖으로부터 눈과 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아니! 영향의 도를 넘어서 나의 본래적인 것과 구별해 낼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결정하고 있지 않나? 나는 아직 의식이 분명치 않을 때부터 나의 요람이라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중심해서 설정한 상황, 그 안에서 이루어진 기준에 의해 곱다 밉다 또는 좋다 나쁘다라는 의식을 주입 당해왔다.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사람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가정이 나를 가장 구속하고 얽매는 수용소가 되는 셈이다.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는 것은 나의 자유가 부모에게서 선생에게로 일부 위탁되는 것이다. 선생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지식과 기준을 나에게 주입시킬 뿐이다. 내가 사는 사회는 그 나름의 규범을 설정하고 계속 나를 설득하고 세뇌한다. 이런 현실은 기계문명사회에서 가속화 된다.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인쇄물이 나에게 자주적으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느낌 그리고 뜻이 자율성을 잃고 흐르는 물에 뜬 낙엽처럼 내맡겨져 있다. 네 생각과 내 생각, 네 느낌과 내 느낌이 같다는 것은 인간의 공유성의 노출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주입에 의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유행이 가능할까? 만일에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사람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산업사회의 특징은 기계화에 있다. 기계의 특징은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즉 그것은 정해진 궤도에 잘 순응해서 기계이다. 그 중에 두드러진 특징은 부분품의 모양과 규격이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 물건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부분품은 언제나 갈아 치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영역도 급속도로 기계화되어 간다. 산업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유니폼(uniform), 유니피케이션(unification)이다. 공장은 물품을 대량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한다. 대량생산의 특징은 최다수의 공통성에 영합하는 대신 각개의 특징을 죽여버리는 일이다. 제품이란 그런 것이다. 수백, 수천만의 제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똑같은 모양의 의복이 한꺼번에 세계에 퍼진다. 사람들은 각기 몸의 모양이 다르건만 그 제복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선전에 의해 좋게 보이니까 사서 입는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천만의 인간이 같은 제복의 포로가 된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청바지, 속옷바지 등의 제복을 입은 대열이 세계를 누빈다. 음악, 식품, 생활양식이 똑같아져 만 간다. 그것은 제품이 강요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서구인의 체질과 체구가 우리의 그것과 그렇게 차이가 있고, 우리의 몸가짐의 습성이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식생활이나 앉음새가 그렇게 다른 역사를 뒤에 업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갑자기 같아져서가 아니라 각기의 특성을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내 몸이나 취미, 습성을 위주로 하고 그것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제품에 나를 맞추어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버리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현대인은 획일화되어만 간다. 그 획일화는 이미 국경을 초월한 지 오래다. 다국적 기업의 독점성은 사상이나 느낌의 차이를 앞질러 같은 제품으로써 지구족을 '통제'하여 같은 취미로 몰아간다. 이것은 외적 조건이 내적 조건까지 침범해 들어가는 것의 구체적 예증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계문명 사회의 현상은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회성이 최대한으로 이용된 현상일 뿐이다.

자유라는 개념은 원래 사회적인 것이다. 가령 서구의 자유개념의 발상지인 헬라에서는 자유가 국가도시인 폴리스와 직결되어 있다. 폴리스는 고대의 민주적 공동체로서 시민의 의사를 집결하여 법을 만들고 지도층을 뽑아 통솔해 나갔다. 그런데 이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바로 자유인이다. 이들의 자유는 폴리스에 속해 있음으로써만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것은 참정의 권리이며 수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 권리가 바로 자유인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의무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폴리스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뜻이 반영된 규율에 따른 의무를 다하면 비로소 자유인인 것이다. 따라서 그 자유는 '안'에서의 자유며, 의무라는 계약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찾아지는 것이지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며 그런 것은 가상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인간은 관계존재이다. '나'는 '너'를 전제로 한 것이며, '나'와 '너'는 '그'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없이 나없는 것처럼 너의 자유없이 나의 자유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나 좋을 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쉽게 내뱉지만 '내 마음대로'가 될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그런 형태가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상관 안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관계존재란 말은 연대관계에 있다는 말이다.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향이 좋은 것일 수도 있으나 나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계존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재는 언제나, 그 자체가 독립된 기관(organ)처럼 생각되는 양심 따위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밖의 것들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자유는 허용되지 않거니와 허용해서도 안 된다.

Ⅳ. 자유의 적

자유에의 염원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갖고 있지만 자유를 침해당한다. 위에서 이미 자유가 어떻게 제한되고 구속당하는지를 지적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적이 있다. 그것은 욕심이다. 그런데 이 욕심이 자유 의지와 결부되어 구조적으로 자유를 파괴한다. 이 욕심은 다양한 형태로 자유를 파괴할 수 있는데 다음 몇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욕이다. 정욕은 인간의 한계존재성을 파괴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 정욕은 기존의 윤리질서를 서슴없이 파괴하면서도 당당하게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것은 정욕이 사랑의 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욕은 욕심으로서 자기 충족이며 자기 관철인데도 그 행위가 바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주는 행위이며 그런 고로 사랑의 행위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력적인 것이다. 사랑은 무엇 무엇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정욕이 그대로 자기 정당화의 무기로 삼기 때문에 무서운 힘을 지닌다.

이 정욕을 관철하는 것은 상대방을 점령해 버리는 것이다. 그로써 상대방을 완전 예속하고 그의 자유를 빼앗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정욕을 행동화하는 자신의 자유도 파괴된다. 그는 가짐으로써 그것에 포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 허락지 않는 행위면 행위일수록 함정이 된다. 한걸음 나가서 자신마저도 허락할 수 없는 행위이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덫이 된다. 이처럼 나의 자유 그리고 너의 자유를 파괴한다. 그것은 정욕과 사랑의 혼돈이 자초할 결과다.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둘째는 관념에 의한 자기 확대이다. 사람은 원래 한계존재다. 그 한계선을 넘으면 이미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인간의 한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더불어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언제나 밖으로부터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관념을 타고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욕심이 자유로 변장하여 관념을 타고 자신을 최대한으로 확대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제약에서 자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의 파괴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의 행동은 남의 자유를 박탈한다.

한 학생이 굶주렸다. 세상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가 굶주린다는 것이 용인되지 않았다. 그것을 용인하면 자신이 너무 초라한 존재로 보여 견딜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어떤 노파는 돈이 많아 고리대금업을 한다. 저 하찮은 노파, 세상의 기생충같은 노파에게 그런 풍요함이 편중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나폴레옹같은 영웅은 수십 수백만의 사람을 죽였어도 영웅이다. 저런 노파의 돈을 뺏기 위해 그를 죽인다고 그것이 죄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에서 그는 스스로 초인이라는 관념으로 무장한다. 그래서 그는 그 노파를 죽여 버린다. 그러나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계산에 없던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게 된다. 그의 관념은 남의 생존권을 빼앗고 마침내 자신의 자유마저 빼앗아 버린다. 관념은 쉽게 세계 안의 존재성을 잊게 하므로 자신의 그리고 남의 자유를 빼앗는 역할을 한다. 이 관념이 똑같아야 할 인간의 자유권을 등급화하거나 무시함으로써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바로 자유의지가 관념화될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다.

세째는 권력욕이다. 권력욕은 본능충족이나 제약에서의 탈출의욕과는 다른 지배욕이다. 권력욕도 자기 확대욕이라는 점에서 관념에 의한 경우와 같다. 그러나 남을 지배하려는 특수한 욕구다. 바로 이것이 인간역사에서 경험한 자유의 최악의 적이다. 위의 두 경우는 개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인적 차원에서 그치나 이 욕구는 구조화되어 구조악을 형성한다. 그것은 정권을 형성하고 인간의 자유를 희롱한다. 자유를 위한 싸움은 대부분 이 적을 향했던 것이다. 자유라는 나무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경험적 결론도 바로 이 적과의 싸움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이 권력욕의 횡포는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질서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국가의 원래 목적은 야경국가적 의무다. 그것은 국민의 안녕을 보호하고 그 권익을 빼앗으려는 도둑놈을 지키는 데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을 당위로써 받아들인다. 그런데 권력욕이 바로 이것을 타고 등장하는 것이다. 도둑놈이나 살인자는 복면을 쓰고 행동한다. 그러나 권력욕은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기치를 들고 도도히 등장해서 권리를 빼앗고 사람을 죽인다. 이래서 인간 역사는 국가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른다.

법의 제정은 바로 이런 권력욕의 횡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근대국가가 헌법에서 가능한 대로 권한을 분리시켜 상호 제어하도록 한 것도 권력욕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것도 이 권력을 분산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권력욕은 그 형태를 바꾸어가며 계속 자유의 적이 되고 있다.

네째로 경제력의 횡포이다. 이미 기계문명 사회가 얼마나 인간통제를 구조적으로 하는지를 지적했지만 오늘의 경제력은 단순한 소유욕의 표출이 아니라 세계지배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의 기업주들은 이미 자기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 세력이 되어 모든 미디어를 동원하여 인간의 뇌리에까지 파고 들어 노동자를 기계화하고 인류를 하나의 소비단위로 전락시킴으로써 소비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정력을 바치게 하여 그 자유의지를 마비시키며 권력과 결탁하여 인간의 자유를 여지없이 앗아가는 전쟁도발을 꾀하며 살인무기 판매경쟁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력의 횡포로 구조화된 사회에서는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떠한 자유의 가능성도 봉쇄되어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유했거나 하려고 하면 자유를 그 대가로 치뤄야 한다는 딜레마에 인간을 몰아 붙이고 있다.
이 경제력이 권력과 야합해서 기술과 기계를 독점하여 인간의 자유영역을 급속도로 좁혀가고 있다. 기계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컴퓨터와 로보트 등으로 인간을 대치하므로 기계에 의한 인간추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과정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국가권력은 기계문명을 이용하여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이른바 민의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정부도 테크노크라시에 의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추진해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에 있는 세계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V. 자유구현을 위해서

구현이란 사념(思念)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형태를 띠게 하는 것이다. 근대 사회는 자유 구현을 언론, 집회, 신앙 그리고 결사의 자유로 집약해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열거된 것을 보면 자유가 구현된 것이 아니라 자유의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들이다. 즉 최소한으로 위의 조건이 주어져야 자유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나 집회 또는 결사의 자유를 얻어 무엇을 주장하고 추진하자는 것인지 무엇을 신앙하자는 것인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통제된 사회에도 그러한 자유는 허락되어 있다. 단지 무엇을 지양하느냐에 따라서 금지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정부와 국민간에 자유에 대한 시비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언론, 집회 등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데 반해 비판세력은 그런 자유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그 세력을 제재하지 수단은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그 목적이 정부편에서 인정되는 어떤 것을 위한 경우에는 그 자유는 사실상 보장된다.
사람들 중에는 자유란 밖의 힘에 강요되지 않는 상태라고 규정하는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상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진공 상태를 연상케 하는데 그것은 세계 안의 존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자유는 어떤 물체처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나 남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공간을 차지한 어떤 것도 아니다. 자유는 싸우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자유는 그 자체 안에 목적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유에는 '에서'(from)나 '를 위해'(for)란 단서가 분명할 때 구현되는 것이다. '에서'로부터 '에로'로 향하는 자유, 이것은 벌써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에서'의 자유란 구속된 어떤 것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것으로 소극적 의미만이 있다. 이 소극적 자유의 요구만으로는 어떤 가치가 없다. 그것은 반드시 '에로' 즉 '무엇을 위하여'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구현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에로'가 분명치 않은 '으로부터'의 자유는 방종 이상일 수 없다. 진정한 자유의 구현은 '에서'와 '에로'사이의 순간을 허용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한 자유이냐를 뚜렷이 하지 않으면 참 자유는 구현되지 않는다.

'에서'는 과거요 '에로'는 미래이다. '에서'는 자유의 내용이 될 수 없고 '에로'만이 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느냐가 현재 자유의 내용을 결정한다. 여기서 자유의 구현이란 성격이 제시된다. 그것은 미래에 의해 현재를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것과의 긴장 내지 투쟁을 가져온다. 미래에 의해 살 때 현재에서 자유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는 기존의 것과의 긴장 또는 투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형태다.

미래라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시간적 표상이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표상한다면 외점(外點)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외점, 나의 현존영역의 외점, 지구의 외점! 지구에 붙어 있는 자는 지구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지구에서의 자유가 없다. 지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만일 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구현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하려면 지구 밖의 외점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지구 밖에 발디딜 거점을 다오! 그러면 나는 지구를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말이 있다.

자유의 구현은 이러한 외점에 근거할 때만 가능하다. 내가 나에게서 자유하려면 나 밖의 거점에 발을 디디거나 그것에 닻줄을 던짐으로써만 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권력에서의 자유를 위해서는 권력 내에서가 아니라 권력 밖의 거점을 가져야 가능하며 경제력에서의 자유는 그것 밖의 거점을 가질 때 가능하다. 미래, 또는 외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지금의 것 아닌 어떤 것을 내세웠다. 그것이 여러 형태의 유토피아상으로 서술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상이거나 기존의 가치관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예수는 하느님의 나라 도래를 선포했다. 그것은 하느님의 주권만이 지배되는 현실이다. 그는 하느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대신 기존 체제에서 가진 것은 버리고 이 나라를 향해 자신을 개방하라고 했다. 그것이 '회개'이다. 이것을 자유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느님 나라의 도래! 이것은 절대자 또는 절대적 현실의 도래! 라고 바꾸어 읽어서 틀리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것은 절대에 의해서 상대적인 것에서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열거한 자유의 적들에 공통된 특징은 상대적인 것이 절대처럼 군림한다는 점이다. 지나갈 것, 없어질 것, 잠정적인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인 듯이 절대로서 군림하므로 사람을 체념, 항복하게 하여 노예화한다. 이런 허상을 간파하고 그것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것을 상대화하는 일이다. 이 상대화의 길은 절대자에 의해서만 가능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하다. 미래 또는 외점이 하느님의 나라로 표상되었다면 절대자에 의해서, 절대를 믿음으로써 상대적인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에서'의 자유는 되어도, 아직 '을 위하여', '에로'의 자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 길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 고백에서 제시되고 있다.

> 그는 본래 하느님의 본체셨으나
>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시지 않고
>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읍니다.
>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읍니다 (필립 2,6-8).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마침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란 바로 하느님이 자신을 격하하여 사람과 일치시킨 사건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되되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져야할 수난을 대신했다는 것이다. 여기 자유에의 열쇠가 제시됐다.

참 자유 구현은 '에로'가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하느님의 '사람에로'의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의 사건이란 말이다. 자신을 비운 것은 '인간을 위해서'이다. 자신을 격하시키고 비우고 마침내 버린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가능한 자유다. 그런데 그 목적은 뚜렷하다. 그것은 낮은 데 있는, 죽음에 포로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저 '인간에로'의 자유를 구현한 것이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구현의 파라다임이다.

우리의 자유 구현은 결국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되, 마침내 나를 버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릴 각오를 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에서'에 그친다. 자신을 버림이 나보다 낮은 데로, 자기 아래로 가기 '위해서'일 때 비로소 자유는 구현되는 것이다. 그 '에로'가 맨 밑바닥에 도달하면 할수록 자유의 폭은 넓어진다. 가진 자가 못가진 자에게로,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로, 내가 너에게로, 옮겨 갈 자유를 구현할 때 모든 기존 체제에서의 자유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사회의 개혁 즉 '안'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하여'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자유구현의 유일한 지표가 될 것이다.

(「성신여대 교지」, 1982·7/원제 : "내적 자유의 구현문제")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